

과기정통부,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2년 연속 배출

- '25년 참여기업에 이 아이파크, 세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 혁신상 수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리 정부 기술(GovTech*) 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정의)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여, ①대국민 디지털 융합, ②지역·사회 문제 해결, ③공공 기반 시설(인프라) 등을 혁신하는 서비스

'25년도 사업 참여기업 중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6 혁신상의 주인공은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에이아이파크로, 인공지능 아바타 영상 제작 해결책(솔루션) ‘AiVATAR(아이바타)’를 통해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iVATAR’는 문서(텍스트)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영상 뉴스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해결책(솔루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에서 사용 중이다.

'24년도 사업에서는 소방 원격관제 안전 관리 해결책(솔루션) ‘BDApp(비디앱)’을 개발한 이엠시티와 장애인 보행 정보 서비스 ‘WheelAR(휠AR)’을 제작한 엘비에스테크가 각각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부문과 인간 안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년 연속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기업을 배출한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은 정부 기술(GovTech) 분야 창업·실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외에도 지난 2년간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누적액 약 90억 원 달성, 국내외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성과를 견인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민관 협력 실증으로 입증된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참여기업들의 ▲시장 진입 ▲투자유치 ▲사업화 ▲매출 실현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26년에도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사업 공고는 1월 중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는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정부 기술(GovTech) 분야가 2년 연속 국제적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올해도 민간의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공지능 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 전환지원과	책임자	과장	정재훈 (044-202-6470)
		담당자	사무관	배준기 (044-202-6475)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